



“지역 어디든 찾아갑니다”

파주시노인복지회관 이동복지관 사업

5월 26일 파평면사무소에서는 지역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아주 특별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파평면사무소 안상훈 면장을 명예관장으로 이장단회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복지이웃119 발대식이 그것이다.

복지이웃119는 파주시노인복지회관에서 진행 중인 이동복지관 사업 중 하나로 지역이 리더들이 지역 소외계층의 후원자로 지역 자원을 발굴, 제공, 연계하며 지역복지기관과 지역주민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날 발대식에서 안상훈 명예관장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복지이웃119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이동복지관 사업이 지역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동복지관이란 복지기관의 부재로 의료 상담 문화 등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농촌지역에 상담실 및 의료장비, 프로그램 기기 등이 설치된 차량이 직접 방문해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형 복지서비스이다.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 파주시내에서 도시개발에서 소외되어 의료, 복지, 문화시설이 미흡하고 복지관이 없어 사회복지 서비스 접근에 취약한 8개 읍·면 농촌지

역 주민 1,700명을 대상으로 이동복지관사업을 시행하여 복지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파주시노인복지회관의 이동복지관은 지리적·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진 4개 거점지역(문산, 파주, 법원읍, 파평면)을 중심으로 지역자원 네트워크(복지이웃119)를 통하여 지역주민 조직화, 주민복지학교, 1379부킹데이 등의 교육 및 문화활동, 1.3세대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지속적인 지역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직접서비스(의료서비스, 여가프로그램)와 간접서비스(가정결연, 생일잔치, 주거개선, 사례관리)를 병행 실시한다.

농촌지역에서 취약한 치매 및 우울증 등을 예방하고 취약노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치매진단 및 건강강좌, 건강상담, 물리치료, 영양상담 등을 제공하며 지역주민을 조직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주민복지학교 개설, 명예이동복지관장제도 도입, 지역별 네트워크체계 구성, 1.3세대 봉사단 구성 및 1마을 1봉사단 결연을 통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중심으로 취미여가프로그램과 마을단위의 문화행사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간 화합의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가사례발굴을

통해 가정 결연, 주거개선, 사례관리, 정서적 지지를 통한 지역사회 지지체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특히 의료복지문화시설 부족 등 도시개발의 지역적 불균형과 특히 노인성질환에 취약한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복지관사업을 통해 치매진단, 건강교실 등의 예방적 의료서비스, 주민복지학교, 사회문화프로그램, 재가대상자 결연 등의 지역연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지역주민조직화, 의료복지, 재가복지, 기타사업으로 분류되며

지역주민조직화 사업은 △ 복지이웃119발대식 :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 단위지역별로 명예 관장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소속감 증대와 지원체계 마련 △ 주민복지학교 : 파주시의 복지현황과 지역문제해결 워크샵, 노인체협 등을 통한 복지인식의 확대와 참여기회를 제공 △ 1379부킹데이 : 마을단위의 문화행사 △ 이동농항터 : 민요교실, 맷돌체조, 노래교실 등의 여가활동 프로그램 진행 △ 봉사단활동 : 마을청소 및 환경미화 등의 봉사단 활동

의료복지 △ 건강방좌 : 계절별 특성에 맞는 건강상식과 의학정보 특강 실시 △ 영양상담 : 전문영양사의 식이요법과 올바른 식습관을 위한 상담 실시 △ 수지침 : 수지침 시술 및 지압요법 교육 △ 방문진료 : 파주시노인복지회관 촉탁의, 간호사의 방문진료 및 건강상담 △ 순회진료 : 지역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건강검진 및 상담 실시 △ 물리치료 : 파주시노인복지회관 물리치료사의 방문 물리치료 실시

재가복지 △ 동아리모임 : 짬뽕공예, 웰빙요리 등 정기적인 동아리 활동 △ 생일잔치 : 생일을 맞은 독거노인과 결연이 모여 생일을 축하하는 활동

기타 △ 주민간담회 : 사회복지공무원, 부녀회, 통이장, 청년회 등에 이동복지관 설명 및 운영체계 안내 △ 치매우울노인발굴 : 치매 및 우울증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 △ 서비스 연계 정보 제공 : 치매 우울증 노인 발굴 후 정보제공 △ 가정결연 : 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 조손가정에 자매결



▲ 파주시 농어촌 이동복지관 차량

연을 통한 서비스 제공 △ 주거개선 : 주거환경이 열악한 수급 및 저소득 가정에 취약한 주거시설의 개선

Mini Interview

▶ 처음 이동복지관프로그래밍을 기획하게 되신 동기는 무엇입니까?

파주시의 면적은 서울의 1.12배로 매우 크나 이동복지시설이 없다. 그러나 우리복지관은 파주시의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지역적인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호경
파주시노인복지회관 관장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적 불균형과 특히 노인성질환에 취약한 농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이동복지관사업을 실시하여 복지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하고자 이동복지관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농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형태인 이동복지관은 농촌지역의 현실에 잘 맞는다 할 수 있다.

▶ 기관에서 기대하는 이 사업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우선 지역주민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자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복지소외계층의 지지체계 구축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질병의 위험에 놓인 농촌어르신들의 발굴과 예방적 의료서비스 제공, 취미여가·교양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자 한다. 또 복지사가각지에 놓인 농촌지역 소외계층의 의료·문화·복지 욕구 해소를 통한 사회복지인식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 지역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가장 큰 변화는 농촌지역 노인 여가문화의 변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여가시간을 화투, TV시청 등으로 보내셨으나 이동복지관의 취미여가·교양문화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직접적인 참여 기회가 제공됨으로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선택과 향유의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또 정기적인 건강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의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자원의 조직화를 통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의 유지와 농촌지역 자조모임 강화의 기회가 되었다.